

필라코리아 2025 대금 수상, 일본의 여성 우취가 인터뷰

허진 우표지 간행위원장

일본의 여성 우취가 기쿠치 에미(菊地恵実: 郵趣振興協会 編集人) 씨는 2023년 태국의 세계우표전시회에서 대금상(LG)을 수상한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주이다. 여성으로서는 아시아 최초, 올해 필라코리아에서도 대금을 수상하였기에 우취의 세계, 특히 아시아권의 우취계에서는 극히 보기가 힘든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방한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우표수집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표 수집을 시작한 것은 아마 대학생 시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창시절에는 우표 수집 이라기보다는 귀여운 디자인의 우표를 마음대로 샀었고 그저 [우표=귀여운 잡화]라는 인식이었습니

다. 그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2014년 11월입니다. 계기는 2014년 11월에 개최된 JAPEX 2014입니다. 거기에 혼자 갔을 때, 사이 토오루(齋 亨) 씨(PHILAKOREA 2025/Postal Cards of Japan 1873-1874 출품)와 요시다 타카시(吉田 敬) 씨(PHILAKOREA 2025/Kingdom of Prussia 1850-1867 출품/챔피언 클래스)의 패널 디스커션을 경청한 다음, 요시다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 이 세계(우취의 세계)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알게 된 우취가들이 경쟁 우표전에 한번 출품해보라는 조언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전문 수집(제1차 쇼와(昭和)우표)을 개시했습니다.



2016년 미국 뉴욕 전시회 팔마레.
왼쪽이 우취진흥협회 창립멤버 이케다 겐자부로(池田 健三郎),
가운데가 우취진흥협회 대표이사 요시다 타카시(吉田 敬)

2. 여성 우취가로서 지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표수집은 남자들의 소유물처럼 보이며 여성들은 극소수인데, 활동하시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수집가로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제 능력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숙박이 수반되는 모임 등의 경우, 여성은 아무래도 독방을 써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 남성은 같은 방을 나누어 쓸 수 있기에 다소 비용이 저렴해지므로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만나는 분의 이름을 좀처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능력 부족에 의한 것입니다만, 특히 이 우취의 세계에 들어왔을 무렵, 여러분들과 알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다들 나이가 많고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얼굴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여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방은 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말을 걸어 줍니다만, “에? 이 분의 이름이 뭐였더라?”라고 고민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전체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이름을 물어 기억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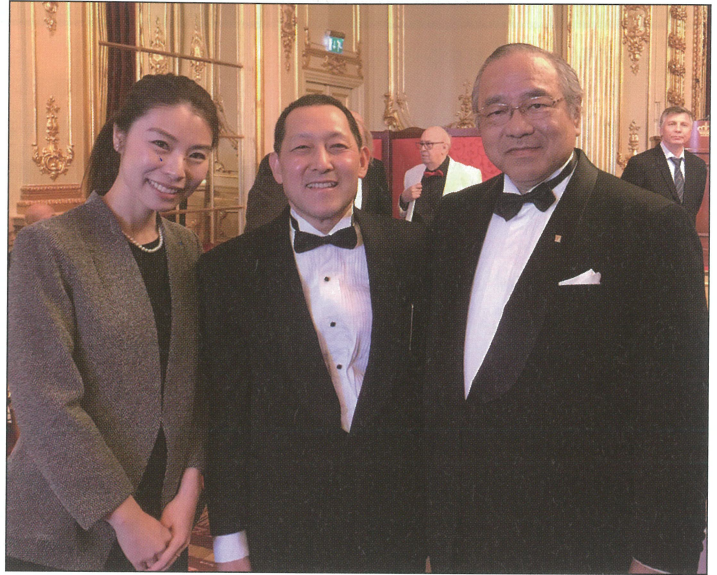
다른 것은 딱히 어려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적기 때문에 저를 기억할 것이라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3. '필라텔리스트'인지 어느 잡지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대부분의 소득과 잡비는 우표에 할당하고 그나마 비싼 기물의 경우, 머리가 긴 탓에 헤어드라이어는 유독 고급을 쓴다는 기쿠치 씨의 언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표를 많이 사셔서 곤란할 때는 없었습니까?

아마 필라텔리스트 매거진의 후기에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곤란한 것은..... 항상 금전이 부족한 것이라고나 할까.

실은 2015년 7월 전문 수집을 주위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저의 주전공인 제1차 쇼와(昭和)우표는 초보자용으로 그다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어서 모으기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들 줄은..... 완전히 속았네요(웃음). 어쩌면 저에게 전문 수집을 권유한 동료들도 이 정도로 제가 빠져들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작품을 출품하면 국제전도 참관하고 싶기 때문에 여비도 필요하니까요. 가난한 직장인에게는 힘들지만 수집을 계속하는 것의 매력이 더 큰 것이기에 기분은 충족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의 쓰임새에 대한 강약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스웨덴 스톡홀름 전시회에서
프라쿰 취라키티 FIP 회장과 필라코리아2025
심사위원 간사를 수임했던 사토 고이치(佐藤浩一)와 함께

4. 2023년 태국에서 쇼와(昭和)우표 작품과 처음 대면했을 때, 이건 무조건 대금상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한데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최초의 세계전 출품이었다는 것인데(신청서 수상기록의 누락에 따른 착오), 대금상 수상을 미리 예상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소 놀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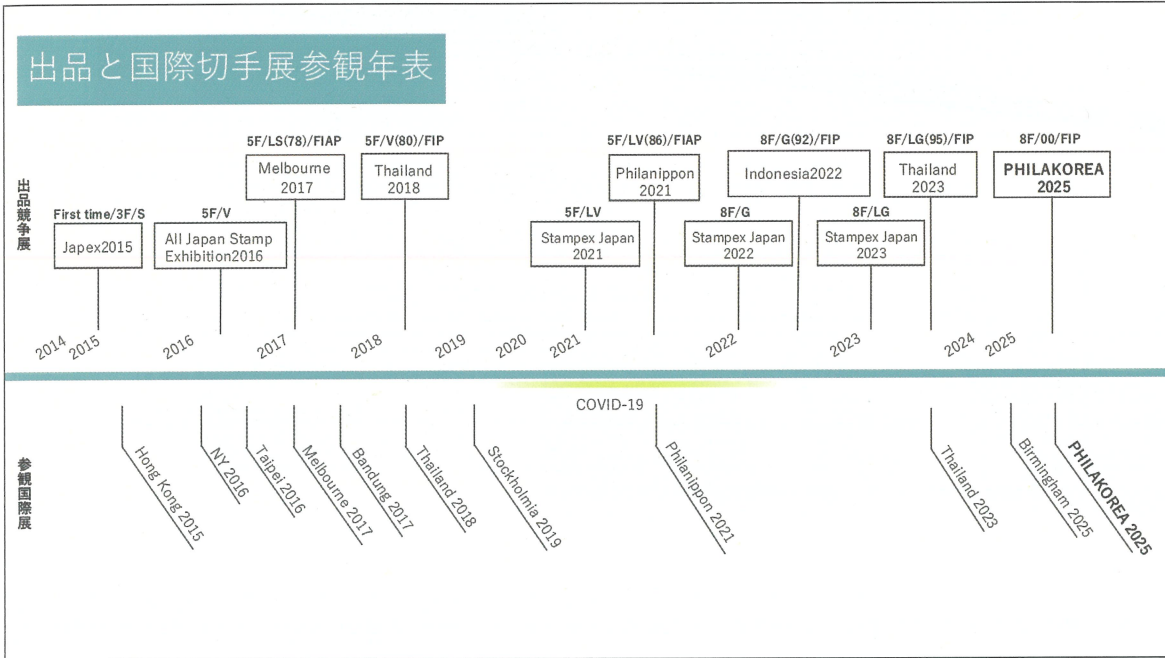
태국에서의 작품을 보고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큰 영광입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HAILAND 2023(FIP)은 저에게 세 번째 세계전시회였습니다. THAILAND 2018이 저의 FIP전 데뷔가 됩니다. 2018년에는 5틀로 출품했고, 결과는 금은상이었습니다. 사실 2018년 태국에 출품할 당시 저는 대금은상을 잡을 생각으로 자신 있게 출품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금은에 머물러 한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시기(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십기일전해 PHILANIPPON 2021(FIAP)에서 대금은상을 받아 8틀 출품 자격을 획득, INDONESIA 2022(FIP)에 출품해 금으로 올라간 다음, 다음 해인 THAILAND 2023에서 드디어 대금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상을 올려 나갔는데, 실은 그동안 국제전에 출품하기 전에 반드시 국내전인 STAMPEX JAPAN에 출품을 했습니다. 이 STAMPEX JAPAN은 국제전 심사위원들에 의한 국제 기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작품 구성 등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어 왔었습니다. 이 구성으로 정말 좋은 것일까, 국제전에서는 통용되는 것일까, 그런 불안이나 고민을 실전인 국제전 출품 이전에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출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전에서 국제전 기준에 따른 심사와 피드백을 받아 보다 좋은 상태의 것으로 국제전에 도전한다는 복안이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예행연습적인 것이고, 행운을 비는 부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전 이전에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는 점,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결국 대금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자신이 2023년 태국에서 대금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고, 수상기록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작품은 하나라도 상을 더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출품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얻기 힘든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진 씨를 비롯해 THAILAND 2023을 참관하신 분들로부터 현지에서 작품에 대한 칭찬을 들은 것은 지금도 저의 수집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작품을 축조해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수집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돈된 컬렉션으로부터 출발하셨는지요?

현재 형태가 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아하, 2015년 11월의 국내전 3틀로부터 시작해, 2025년 9월 PHILA-KOREA 2025까지 저의 작품 편력(경쟁전 출품)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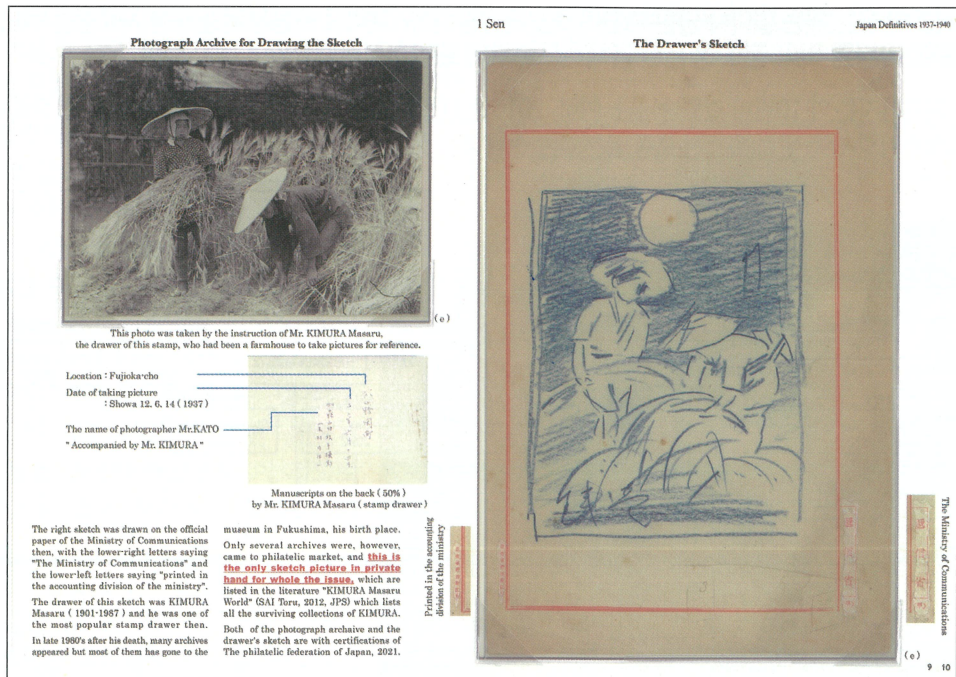


이 작품은 전문 수집을 시작한 2015년 7월에 우표 한 장부터 구입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시리즈에 대한 지식도(몇 종류의 우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우표 단 한 장도 수중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 처음부터 시작한 작품입니다.

6. 기쿠치 씨의 작품을 보면 쇼와보통우표의 큰 줄기에 따른 분류도 훌륭합니다만 잉크의 뭉침 현상이라든가 요판 인쇄상의 불충분한 전사(轉寫) 현상 등의 극도로 세밀한 변종까지 발굴해 내는 것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스스로 발견한 것도 있으신지요?

- 네. 스스로 발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3전(錢)짜리 [참/參] 글자의 정상변종
 - 3전의 윤전판 출현 시기 데이터의 갱신
 - 14전 중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인쇄기로 제조된 것
 - 50전짜리 인쇄판의 밀림으로 인한 실용판 구성 등

그리고 연구 도중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향후 작품 속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1차 쇼와우표는 일본의 국력이 아직 쇠퇴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행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우표였습니다. 그 때문에 에러는 적고, 또 인쇄 관련 자료 등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에 대해 쉽게 알 수 없는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집 초기에는 이른바 [제조면]의 구성에 있어 골치를 썩이는 일이 매우 많았고, 사실 제조면의 분야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쇄기거나 인쇄판 관련 사항을 배워 나가는 사이에 [제조면]의 재미를 깨달아 지금은 제 작품상의 중요 축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조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은 전지들을 가끔 모두 꺼내어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저의 즐거운 한때입니다(웃음).



키무라 마사루(木村 勝)가 그린 1센 저액면의 스케치

7. 일본은 엄격한 자료의 검열과 보관으로 워낙 유명합니다만 시채나 원도 등의 희귀자료는 시중에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다른 보통우표 시리즈에 비해 1차 쇼와보통우표의 경우는 시채 등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자료의 보관이 엄격하여 민간에 나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우정 관련 인사(특수·특별한 직책이 많음)들이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 해당 인사의 사후에 시장에 나오는 일이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극히 드문 기회밖에 입수할 기회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문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도 구미 선진국 등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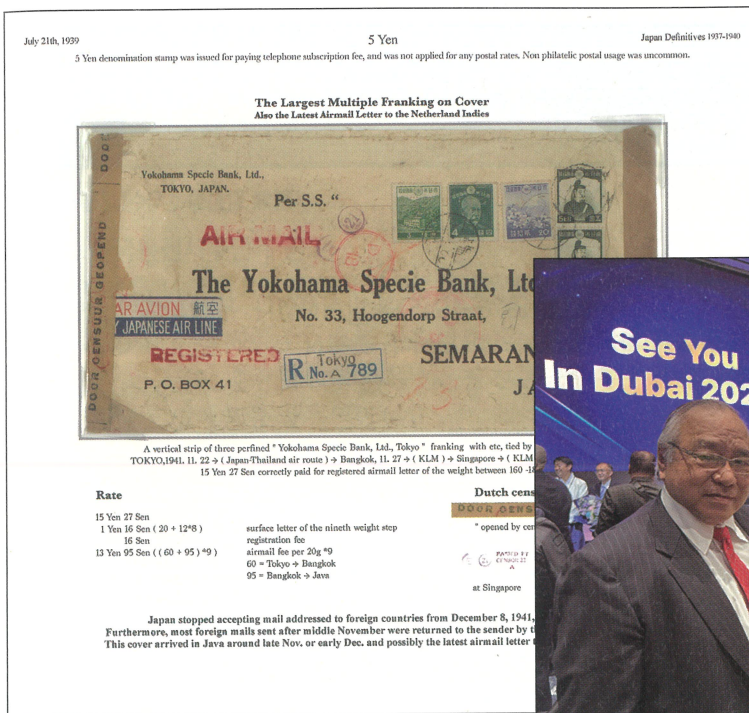
8. 이제 쇼와 보통우표는 정점에 달하신 것으로 보고, 꼭 소유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수집영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은, 예러 우표는 아무리 많아도 좋으니 앞으로도 꼭 가지고 싶네요. 무공이나 천공 예러, 그리고 또 화끈한 인쇄 예러 등이 있으면 입수하고 싶습니다. 정상변종도 향후 새롭게 발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입수하기보다는 연구를 진행해 가고 싶습니다.

사용예로 말하면, 모든 액면을 다수첩부 실체 봉투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1장이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표가 붙어 있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외국 클래식입니다. 외국의 클래식은 동경의 대상입니다.

9. 기쿠치 씨의 작품을 본 저의 동료들은 이것이야말로 전통수집의 교과서적인 작품으로서 세미나 교재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혹시 한국이 초청하면 나중이라도 우취 세미나 등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5엔 고액면 최다 첨부 실체봉투



9월 20일 팔미에서 대금상을 수상한 뒤의 포즈. 왼쪽은 심사위원 간사 사토 고이치(佐藤 浩一), 오른쪽은 챔피언십 클래스에 프로이센 클래스를 출품했던 요시다 다카시(吉田 敬)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큰 영광입니다. ‘꼭 그렇다!’라고 즉답하고는 싶습니다만, 저 자신 내성적이라고 불리는 일본인 중에서도 특출하게 내성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세미나 등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잘하는 편은 아니며, 한국의 누구처럼 능숙하게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고칠 수 있는(웃음) 문장상에서라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과거 몇 번 도전해 보았었는데 부끄럽게도 개최 몇 주 전부터 위통이 발생..... 뭐 이런 느낌인지라 아직 미숙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 황송하다는 느낌입니다.

10. 제가 알기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높은 상을 수상하셨으니 한국이 최소한 불행을 가져다주는 나라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오신다면 수도 서울 이외에 어디를 관광하고 싶으신지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부산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마추픽추’(이건 좀 오버: 편집자)라고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이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에서 스카й캡슐을 타고보고 싶네요. 그리고 해동 용궁사에 가서 앞으로 즐거운 우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하고 싶네요. 부산 이외에도 역사적인 장소, 명승지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으니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1. 이번의 출품과 수상을 통해 한국에서도 팬들이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악은 트롯걸즈재팬, 축구는 ‘골때녀’의 마시마 유(眞嶋 優), 바둑은 나카무라 스미레(仲根 堯), 그리고 우표는 기쿠치 에미(菊地 恵実)로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번에 PHILAKOREA 2025 개최국인 이곳 한국에서 저의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이렇게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 줄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께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한국의 여러분, 그리고 THAILAND 2023에서 말을 걸어 주시고 이번 인터뷰 등 세계와 연결되는 계기를 주신 한국우취연합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건 본인이 한국말로 직접 표기: 편집자) [무표]